

## 실험자의 존재 유무와 친밀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 표현

지 경 진<sup>1)</sup>

이 순 형<sup>2)</sup>

성 미 영<sup>3)</sup>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만 3세 유아 20명과 만 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실패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정서 표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패 상황에 나타난 정서 표현은 유아의 연령과 실험자의 존재 유무 및 실험자와의 친밀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실험자가 부재하는 상황보다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아의 긍정적 정서가 더 많이 표현되었고, 부정적 정서가 더 적게 표현되었다. 구체적으로, 5세 유아는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이 낮은 경우에 실험자 부재 상황보다 존재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가 더 높았고, 3세 유아는 실험자와 친밀도 수준이 낮은 경우에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가 실험자 부재 상황보다 실험자 존재 상황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이 낮은 5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는 실험자 부재 상황보다 실험자 존재 상황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주요어 : 정서 표현, 정서 표출 규칙, 실패 상황

---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이순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 ysh@snu.ac.kr

3)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 I. 서 론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타인의 정서적 표현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상황에 적절한 정서 표현을 위해 정보를 추구하는 능력, 그리고 맥락적 단서로부터 타인의 소망을 이해하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한 결과 아동의 정서 표현은 발달한다(김희연, 2001).

정서 이해의 기초가 되는 인지 능력의 발달은 영아기부터 시작되는데 4~6개월 영아도 긍정적 얼굴 표정을 다른 정서 상태의 얼굴보다 오래 응시함으로써 초보적 정서 인지 능력을 보여주었다(La Barbara, Izard, Vietze, & Parisi, 1976). 또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단서로 타인의 정서 표현을 이용하는 능력은 12~18개월경에 발달하므로 이 시기 영아가 낯선 대상에 접근하려고 시도할 경우 어머니의 표정에 나타난 정서 상태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Klennert, Campos, Sorce, Emde, & Svejda, 1983). 영아기가 지나 3세에서 4세경이 되면 유아는 정서와 정서를 유발시키는 상황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며(Lewis, Stranger, Sullivan & Barone, 1989), 7세 경에는 질투와 같은 복합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도 가능해지는 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이해하는 정서와 상황에 따른 정서적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Saarni, 1988).

특정 상황에서 특정 정서의 표현은 허용되지만 다른 정서의 표현은 금지되는 규칙은 모든 사회와 문화권에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을 정서 표출 규칙(emotional display rule)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 표출 규칙이란 사회에서 어떤 정서가 표현되거나 표현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규명하는 것(Gross & Ballif, 1991; Harris, 1989)으로, 이러한 표현 규칙에 따라 아동은 실망 상황에서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이나 감사를 표현

하는 것과,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망을 억제하고 실제 정서를 가장하도록 요구된다(Shaffer, 2000). 따라서 실망 상황에서 아동은 정서 표출 규칙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최소화하고(Saarni, 1984),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최대화함(Ekman & Friesen, 1975)으로써 정서를 조절하게 된다.

유아의 정서 표현 발달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실망을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정서 표출 규칙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실제적 정서를 조절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실망을 유발하는 실험 상황인 ‘실망 상황’에서 초등학교 1, 3,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선물을 제시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선물을 준 후에 아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실망감을 표현 또는 조절하는지, 즉 정서 표현 조절 과정을 살펴본 연구(Saarni, 1984)가 시도되었다. 이후 Cole과 동료들(1994)은 실망 선물 패러다임을 수정하여 취학 전 유아가 인지 과제를 실시한 후 실험자로부터 바라지 않은 선물을 받고 난 후 1분간 실험자와 함께 있는 사회적 상황과 실험자가 떠난 뒤 유아가 혼자서 1분간 남겨지는 비사회적 상황으로 나누어 정서 표현의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상황보다 비사회적 상황에서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기쁨 정서를 적게 표현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즉 유아는 낯선 성인이 존재할 때는 실망을 가장하지만, 성인이 떠나고 또래들과 남겨졌을 때에는 실망을 가장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 차이는 유아가 실제로는 실망의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구는 실험자와 함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뿐 실험자 자체의 개별 특성의 차이, 즉 실험자와 아동간의 친밀도 수준의 차이에 따른 정서 표현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험자의 존재 유무, 그리고 실험자와 유아간의 친밀도 수준의 차이에 따른 유아의 정서 표현의 차이 여부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또래보다 성인에게,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실제 정서를 더 많이 노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Blurton-Jones(1972)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다른 또래들과 놀고 있을 때보다 성인이 존재할 때 부정적 표현을 더 많이 나타냈다. 또한 아동은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또는 혼자 있을 때보다 또래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정서 표현을 더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eman & Garber, 1996), 아동은 아버지에게보다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였다(Zeman & Shipman, 1996). 이와 함께 나이 어린 아동은 또래에게 보다 성인에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은 정서적 노출의 수용자로 또래를 더 선호하였다(Saarni, 1988). Blurton-Jones(1972)를 제외한 선행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언제 정서 노출 대상으로 성인을 선호하고 또래를 선호하는 지, 그 기준이 되는 연령이 언제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3세가 되면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길 수 있으며(Kopp, 1989; Mangelsdorf, Shapiro, & Marzolf, 1995), 다른 사람 앞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을 자제하는 능력이 나타난다(Cole, 1986)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정서를 규제하는 능력은 주로 유아기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만 3세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이 실망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표현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유아의 정서 표현에 관한 국내연구

들은 주로 놀이에 나타난 정서 표현(김희연, 2001; 신유림, 2000),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강문희·강희연, 1999; 김희진·정윤희, 2002; 신유림, 2000), 그리고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박성연·박혜경, 2002; 임연진, 2002; 정옥분·이지선, 2002; 한유진·유안진, 1998)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일부 연구(이지선·유안진, 1999)에서는 분노와 슬픔 상황에서 아동이 보이는 정서 조절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험자가 이야기를 들려준 후 이야기 상황에 대한 유아의 정서표현 정도를 살펴보았을 뿐 실제적인 실험자 효과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실험자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실망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Cole(1986), Cole과 동료들(1994)의 연구결과는 실험자가 존재할 때와 존재하지 않을 때 유아가 보이는 정서표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기의 정서 표현에 관중의 존재 여부와, 관중의 친숙성 여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망 상황에서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경우 함께 있게 되는 관중은 실험자인데, 지금까지 실망 상황에 관한 연구는 친밀하지 않은 성인 실험자를 관중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Cole, 1986; Cole et al., 1994), 관중과의 관계에 따른 정서 조절을 살펴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망 상황에서 성인 실험자와 유아의 친밀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 표현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의 연령과 함께 실험자 변수를 실험자의 존재 유무와 친밀도 수준으로 나누어 유아가 실망 상황에서 보이는 정서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

정하였다.

연구가설 1. 유아의 정서표현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유아의 정서표현은 실험자의 친밀도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유아의 정서표현은 실험상황에서 실험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연구대상

이 연구는 유아의 정서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 5세 유아 40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 선정하였다. 표 1과 같이 전체 연구대상 유아는 총 40명이었으며, 그 중 남아가 21명, 여아가 19명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을 관찰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세 유아는 평균 42개월(37개월에서 48개월까지) 이었고, 5세 유아는 평균 65.9개월(61개월에서 71개월까지)이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으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

| 친밀도<br>수준 | 성별 | 연령  |     | 전체  |
|-----------|----|-----|-----|-----|
|           |    | 3세  | 5세  |     |
| 친밀도<br>높음 | 남아 | 5명  | 5명  | 10명 |
|           | 여아 | 5명  | 5명  | 10명 |
| 친밀도<br>낮음 | 남아 | 5명  | 6명  | 11명 |
|           | 여아 | 5명  | 4명  | 9명  |
| 전체        | 남아 | 10명 | 11명 | 21명 |
|           | 여아 | 10명 | 9명  | 19명 |

로 살펴본 연구대상 유아의 가정은 중류층이 대부분(92.5%) 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는 실험자 변수 중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었다.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이 높은 유아 집단은 유아와 실험자가 평균 2개월간 주1회 이상의 접촉을 가진 경우로,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이 낮은 유아 집단은 유아와 실험자가 처음 만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 연구방법

#### 측정도구

유아의 정서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Cole(1986)의 연구 및 Cole과 동료들(1994)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ole(1986)은 정서 표현의 관찰 범주로 ‘기쁨’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슬픔, 화, 혐오’의 부정적 정서 표현으로 나누었고,

표 2. 정서 표현의 범주

| 범주           |    | 내용                                                |
|--------------|----|---------------------------------------------------|
| 긍정적<br>정서 표현 | 기쁨 | 입꼬리가 올라감<br>뺨이 올라감<br>눈주위가 주름짐                    |
|              |    | 입꼬리가 내려감<br>안쪽 눈썹이 올라가고<br>비스듬하게 처짐<br>눈꺼풀이 축 늘어짐 |
|              |    | 눈꺼풀이 좁혀짐                                          |
| 부정적<br>정서 표현 | 화남 | 입술을 짹 뭍<br>입술을 팽팽하게 당김                            |
|              |    | 윗입술이 올라감<br>코가 주름짐                                |
|              |    | 걱정<br>눈썹이 내려옴                                     |

Cole과 동료들의 연구(1994)에서는 정서 표현을

‘기쁨, 슬픔, 화, 혐오, 걱정’의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쁨’의 정서 표현을 긍정적 정서 표현으로, ‘슬픔, 화, 혐오, 걱정’의 정서 표현을 부정적 정서 표현으로 범주화하였다. 유아의 정서 표현 범주 구분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에 대한 2인의 관찰자간 일치도를 산출한 결과 93%의 일치도를 보였다. 관찰자간에 평정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 실험절차

**예비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될 연구 도구 및 실험 상황이 유아의 정서 표현을 이끌어내기에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9일에 서울 소재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유아 9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에 앞서 연구 도구로 적합한 매력적인 선물을 선정하기 위해 조사 대상 어린이집 교사에게 질문하여 유아가 좋아하는 선물에 대한 사전자료를 수집하여 선정하였다. 매력적인 선물로는 여아가 좋아하는 ‘머리핀, 액세서리’ 등과 남아가 좋아하는 선물로 ‘자동차 모양 열쇠고리, 캐릭터 카드 모음집’ 등, 중립적인 선물로 ‘스티커, 수첩, 연필’ 등이 선정되었다. 매력적이지 않고 실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로는 선행연구(Cole et al., 1994; Saarni, 1984)에서 사용된 선물을 참고로 하여 ‘부러진 가위, 찢어진 책, 두 조각난 색연필’ 등을 사용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 매력적인 선물과 매력적이지 않은 선물은 유아의 반응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선물의 개수는 유아의 선물에 대한 선호와 매력적이지 않은 선물에 대한 실망 반응을 유발하기에 8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8개로 결정하였다. 유아에게 제시하는 선물의 종류는 여아가 선호하는 선물, 남아가 선호하는 선물, 중립적인 선물, 실망

을 야기하는 선물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본실험:** 본 실험은 2003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실험은 두 명의 실험자가 실망 상황을 유발하였다. 실망 상황은 Saarni(1984)가 고안하고 Cole과 동료들(1994)이 수정한 실망 상황을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첫 번째 실험자(A)가 유아에게 8개의 선물을 받고 싶은 순서대로 고르도록 요구하였다. 이때 8개의 선물은 예비 조사를 통해 선정된 ‘머리핀, 액세서리, 자동차 열쇠고리, 캐릭터 카드 모음집, 스티커, 수첩, 연필’ 등의 7가지 매력적인 선물과 ‘부러진 가위, 찢어진 책, 두 조각난 색연필’ 등의 실망을 야기하는 선물 중 1가지를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때 A는 두 번째 실험자(B)가 과제를 실시한 후 유아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로 선택한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A는 유아가 제1순위로 선택한 선물과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한 선물이 인접하도록 배치한다. A가 나가면 B가 들어와 유아에게 인지 과제를 실시한다. 과제가 끝나면 B는 선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간다. B는 유아가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한 선물, 즉 실망을 유발하는 선물을 유아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방으로 돌아온다. B는 선물을 책상 위에 놓고 자리에 앉으며 얼굴 표정을 하고 유아와 정기적으로 눈을 맞추며 60초간 과제를 정리한다. 만약 유아가 말을 하면 B는 중립적인 톤으로 유아의 말을 부연하여 말한다. 60초 뒤 B는 A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간다. B가 나간 뒤 유아는 방에 혼자서 60초간 남겨진다.

모든 실험 상황은 비디오로 녹화되고, 유아의

정서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에게 실망스러운 선물을 제시한 후 15초간, 실험자가 떠난 후 15초간의 얼굴 표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Cole, 1986)와 예비 실험을 통하여 15초가 유아의 반응을 관찰하기에 적절한 시간 간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자료 분석

얼굴 표정 평정은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자 1명이 연구 대상 유아의 중립적인 얼굴 표정을 숙지한 후에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 표현을 얼굴 표정을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유아의 말이나 어조 등 정서 표현의 음성적인 측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소리가 정지된 상태에서 평정하였다. 15초간 매 1초마다 정지 화면에서 유아의 얼굴 표정을 본 뒤, 표 2에서 나타난 긍정적 정서 표현과 부정적 정서 표현의 범주에 적합한 얼굴 표정이 나타나면 1점, 나타나지 않으면 0점을 부과하였

분석되었으며, 통계 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반복 측정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쌍체 t-검증이 사용되었다.

### III. 결과 및 해석

유아의 연령과 실험자 변수(친밀도 수준, 존재 여부)에 따른 유아의 정서 표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와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는 표 3, 표 6과 같다.

먼저 유아의 연령과 실험자 변수에 따라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실험자의 존재 유무를 피험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에서 실험자의 존재 유무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_{1, 36} = 22.99, p < .001$ ). 즉 실험자 존재 상황에서의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가 실험

표 3.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의 전반적 경향

| 실험자 변수 |       | 연령 |       |      |    |       |       | 계  |      |      |
|--------|-------|----|-------|------|----|-------|-------|----|------|------|
| 친밀도 수준 | 존재 여부 | 3세 |       |      | 5세 |       |       |    |      |      |
|        |       | n  | M     | SD   | n  | M     | SD    | n  | M    | SD   |
| 높음     | 존재    | 20 | 10.40 | 9.88 | 20 | 5.50  | 8.26  | 40 | 7.95 | 9.21 |
|        | 부재    | 20 | 0.50  | 1.27 | 20 | 0.00  | 0.00  | 40 | 0.25 | 0.91 |
|        | 소계    | 20 | 5.45  | 5.40 | 20 | 2.75  | 4.13  | 40 | 4.10 | 4.88 |
| 낮음     | 존재    | 20 | 0.30  | 0.95 | 20 | 11.90 | 11.03 | 40 | 6.10 | 9.67 |
|        | 부재    | 20 | 1.50  | 4.09 | 20 | 0.60  | 0.84  | 40 | 1.05 | 2.91 |
|        | 소계    | 20 | 0.90  | 2.04 | 20 | 6.25  | 5.71  | 40 | 3.58 | 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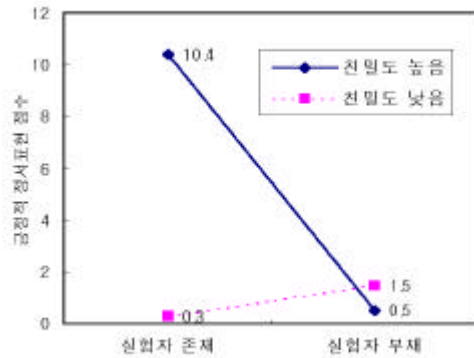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 부재 상황에서의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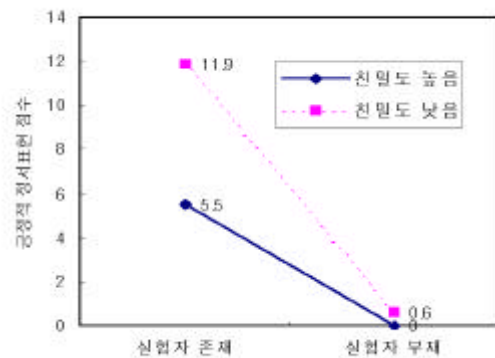
한편,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에서 유아의 연령과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 및 실험자 존재 유무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F_{1, 36} = 10.10, p < .01$ )가 나타났으므로, 쌍체  $t$ -검증을 이

에 차이( $t = 3.47, p < .01$ )가 있었고, 5세 유아는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이 낮은 경우 실험자 존재 상황과 실험자 부재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에 유의한 차이( $t = 3.34, p < .01$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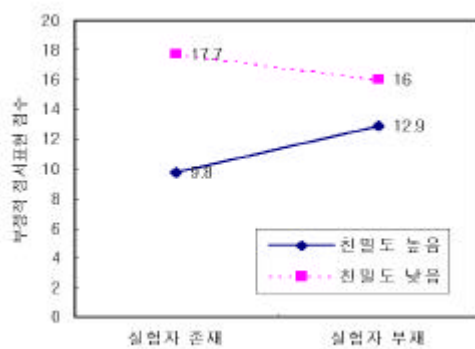
만 3세

그림 1. 긍정적 정서 표현의 상호작용 효과(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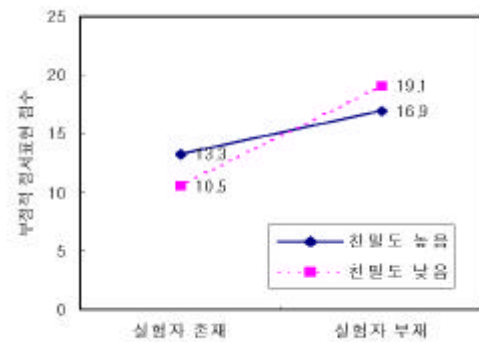
만 5세

그림 2. 긍정적 정서 표현의 상호작용 효과(5세)



만 3세

그림 3. 부정적 정서 표현의 상호작용 효과(3세)  
용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그림 1, 2). 그 결과 표 5에 제시되었듯이 3세 유아는 실험자와 친밀도 수준이 높은 경우 실험자 존재 상황과 실험자 부재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



만 5세

그림 4. 부정적 정서 표현의 상호작용 효과(5세)  
타났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과 실험자 변수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과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을 피험자간 요인으로, 실험자의 존재 유무를 피험

자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에서 실험자의 존재 유무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 36) = 9.01, p < .01$ ). 즉 실험자 존재 상황의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가 실험자 부재 상황의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에서 유아의 연령과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 및 실험자의 존재 유무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 $F(1, 36) = 4.68, p < .05$ )가 나타났으므로, 쌍체  $t$ -검증을 통해 단순 주효과를 분석하였다(그림 3, 4). 그 결과 표 8에서 보듯이 실험자와 친밀도 수준이 낮은 5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는 실험자 존재 상황과 부재 상황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4.76, p < .01$ ).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실망 상황에서 실험자의 존재 유무와 실험자와의 친밀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 표현 양상을 규명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 3세 유아 20명과 만 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실망 상황을 유발하여 실망 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반응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정서 표현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은 실험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실험자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실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다. 이러한 결과는 Cole과 동료들(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실험자가 있는 상황에서 유아가 정서 표출 규칙에 따라 긍정적 정서 표현을

많이 표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만 3세와 5세 유아간에 정서 표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3세와 5세 유아 모두 실험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보다 실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 표현의 표출이 많았다. 이는 미취학 3세 유아부터 부정적 정서 표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Cole, 1986; Saarni, 1984)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 간격을 넓혀서 연령에 따른 정서 표현의 조절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과 마찬가지로 실험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 역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은 실험자 부재 상황보다 실험자 존재 상황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실험자 부재 상황에서도 실험자 존재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더 적게 표현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실망 상황에서 미취학 유아가 부정적 정서 표현의 조절이 가능하였다는 선행 연구(Cole, 1986; Saarni, 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유아는 실망 상황에서 정서 표출 규칙에 따라 부정적 정서 표현을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령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서 만 3세 및 5세 유아의 경우 실망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정도가 유사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 표현의 연령차를 확인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연령간격을 확장하여 그 차이 여부를 확인해봄으로써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수준의 발달적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은 연령과 실험자의 존재 유무 및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에 따라 다르다. 우선 3세 유아가 보이는 긍정적 정서 표현은 실험자와의 친밀도가 높을 경우에

실험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더 많았다. 반면, 5세 유아의 경우에는 실험자와 친밀도가 낮을 때 실험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가 실험자 부재 상황보다 더 높았다. 이는 3세 유아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이나 감사 등의 긍정적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정서 표출 규칙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반면, 5세 유아는 낯선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정서 표출 규칙을 준수하여 더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많이 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의 정서 표현은 단순히 실험자의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그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서 표출 규칙에 따라 실패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은 유아의 연령과 실험자 관련 변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실험자와의 친밀도 수준이 낮은 5세 유아는 실험자 존재 상황에서도 실험자 부재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 표현을 더 많이 나타냄으로써 유아의 연령, 그리고 실험자 관련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패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해야 한다는 정서 표출 규칙(Davis 1995; Shaffer, 2000)이 항상 적용된다고 보기는 실험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실험자와의 친밀도가 낮은 경우 5세 유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 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패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다는 데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에게 실망스러운 선물을 제시하였을 때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일시적으로 보였지만, 가장 받고 싶어하던 선물을 제시함으로써 유아의 정서는 긍정적인 정서로 전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에 참가하지 못하여 선물을 받지 못한 유아는 오히려 선물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실망을 순간적으로 유도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패 상황 유도 실험이 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대상의 표집 규모가 적은 점, 고학력의 전문직 부모가 연구대상에 많이 포함된 점, 그리고 유아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정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실패 상황에 한정하여 실험 관찰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정서 능력은 전인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서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키지 못하는 유아는 현재의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최기영·우수경, 2002), 나이 어린 유아도 특정 상황에 허용되는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이 연구의 결과는 실용적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문희·강희연 (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 수용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 김희연 (2001). 유아기 놀이 행동에 있어서의 정서표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2), 319-340.
- 김희진·정운희 (2002). 유아가 인식하는 부정적 정서와 반응. *아동학회지*, 23(2), 31-47.
- 박성연·박혜경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신유림 (2000). 유아의 상상놀이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3), 133-142.
- 이지선·유안진 (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 정옥분·이지선 (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17-35.
- 최기영·우수경 (2002).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능력과 관련변인간의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23(6), 15-32.
- 한유진·유안진 (1998).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 Blurton-Jones, N. (1972). *Ethological studies of child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 (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disappointment: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 835-846.
- Davis, T. L. (1995).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60-667.
-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ross, A. L., & Ballif, B.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emotion from facial expressions and situations: A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1, 368-398.
- Harris, P. L.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simple, multiple, and blended emotion concepts.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innert, M. D., Campos, J. J., Sorce, J. F., Emde, R. N., & Svejda, M. D. (1983). Emotions as behavior regulators: Social referencing in infancy. In R. Plutchik & H. Kellerman (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NY: Academic Press.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La Barbara, J. D., Izard, C. E., Vietze, P., & Parisi, S. A. (1976). Four-and-six-month-old infants' visual responses to joy, anger, and neutral expressions. *Child Development*, 47, 535-538.
- Lewis, M., Stranger, C., Sullivan, M. W., & Barone, P. (1989). Deception in three year olds.

-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39-443.
- Mangelsdorf, S. C., Shapiro, J. R., & Marzolf, D. (1995). Developmental and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66, 1817-1828.
-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aarni, C.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dissemblance of nonverbal emotional-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2, 275-293.
- Shaffer, D. R. (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Belmont, CA: Wadsworth.
-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s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 **Preschoolers' Emotional Expression depending on Experimenter Variables**

**Kyeongjin Ji**

**Soonhyung Yi**

**Miyoung 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kyeong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Department of Child Stud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preschooler's emotional expression depending on experimenter variables (experimenter present/absent segment and preschoolers' familiarity/unfamiliarity with an experimenter) in a disappointment situation. The participants were 20 3-year-old children ( $M = 42$  months) and 20 5-year-old children ( $M = 65.9$  months) selected from 4 nursery school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according to children's age and experimenter variables. Children showed more positive expression in the experimenter present segment than the experimenter absent segment. In particular, 5-year-old children with the unfamiliar experimenter showed more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in the experimenter present segment than the experimenter absent segment. Also, they showed more negative emotional expression in the experimenter absent segment than the experimenter present segment.

*Keywords :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display rule, disappointment situation*

표 4. 긍정적 정서 표현의 변량분석

| 변량원  |           | 자승합     | 자유도 | 평균자승   | F         |
|------|-----------|---------|-----|--------|-----------|
| 피험자간 | 연령        | 35.11   | 1   | 35.11  | .85       |
|      | 친밀도       | 5.51    | 1   | 5.51   | .13       |
|      | 연령×친밀도    | 324.01  | 1   | 324.01 | 7.80 **   |
|      | 오차        | 1494.75 | 36  | 41.52  |           |
| 피험자내 | 존재        | 812.81  | 1   | 812.81 | 22.99 *** |
|      | 존재×연령     | 82.01   | 1   | 82.01  | 2.32      |
|      | 존재×친밀도    | 35.11   | 1   | 35.11  | .99       |
|      | 존재×연령×친밀도 | 357.01  | 1   | 357.01 | 10.10 **  |
|      | 오차        | 1272.55 | 36  | 35.35  |           |

\*\*p<.01, \*\*\*p<.001

표 5. 긍정적 정서 표현의 단순 주효과 분석

| 연령 | 집단     |        | n  | M     | SD    | t       |
|----|--------|--------|----|-------|-------|---------|
| 3세 | 친밀도 높음 | 실험자 존재 | 20 | 10.40 | 9.88  | 3.47 ** |
|    |        | 실험자 부재 | 20 | .50   | 1.27  |         |
|    | 친밀도 낮음 | 실험자 존재 | 20 | .30   | .95   | -.88    |
|    |        | 실험자 부재 | 20 | 1.50  | 4.09  |         |
| 5세 | 친밀도 높음 | 실험자 존재 | 20 | 5.50  | 8.26  | 2.11    |
|    |        | 실험자 부재 | 20 | .00   | .00   |         |
|    | 친밀도 낮음 | 실험자 존재 | 20 | 11.90 | 11.03 | 3.34 ** |
|    |        | 실험자 부재 | 20 | .60   | .84   |         |

\*\*p<.01

표 6. 부정적 정서 표현의 전반적 경향

| 실험자 변수    |          | 연령 |       |       |    |       |      | 계  |       |      |
|-----------|----------|----|-------|-------|----|-------|------|----|-------|------|
| 친밀도<br>수준 | 존재<br>여부 | 3세 |       |       | 5세 |       |      |    |       |      |
|           |          | n  | M     | SD    | n  | M     | SD   | n  | M     | SD   |
| 높음        | 존재       | 20 | 9.80  | 10.59 | 20 | 13.30 | 6.91 | 40 | 11.55 | 8.89 |
|           | 부재       | 20 | 12.90 | 5.82  | 20 | 16.90 | 3.98 | 40 | 14.90 | 5.27 |
|           | 소계       | 20 | 11.35 | 7.27  | 20 | 15.11 | 4.44 | 40 | 13.23 | 6.17 |
| 낮음        | 존재       | 20 | 17.70 | 8.82  | 20 | 10.50 | 7.37 | 40 | 14.10 | 8.73 |
|           | 부재       | 20 | 16.00 | 7.97  | 20 | 19.10 | 7.00 | 40 | 17.55 | 7.47 |
|           | 소계       | 20 | 16.85 | 7.74  | 20 | 14.80 | 6.59 | 40 | 14.53 | 6.68 |

표 7. 부정적 정서 표현의 변량분석

| 변동원  |           | 자승합     | 자유도 | 평균자승   | F       |
|------|-----------|---------|-----|--------|---------|
| 피험자간 | 연령        | 14.45   | 1   | 14.45  | .16     |
|      | 친밀도       | 135.20  | 1   | 135.20 | 1.54    |
|      | 연령×친밀도    | 168.20  | 1   | 168.20 | 1.91    |
|      | 오차        | 3165.10 | 36  | 87.92  |         |
| 피험자내 | 존재        | 231.20  | 1   | 231.20 | 9.01 ** |
|      | 존재×연령     | 145.80  | 1   | 145.80 | 5.68 *  |
|      | 존재×친밀도    | .05     | 1   | .05    | .00     |
|      | 존재×연령×친밀도 | 120.05  | 1   | 120.05 | 4.68 *  |
|      | 오차        | 923.90  | 36  | 25.66  |         |

\*p<.05, \*\*p<.01

표 8. 부정적 정서 표현의 단순 주효과 분석

| 연령 | 집단     | n      | M  | SD    | t     |
|----|--------|--------|----|-------|-------|
| 3세 | 친밀도 높음 | 실험자 존재 | 20 | 9.80  | 10.59 |
|    |        | 실험자 부재 | 20 | 12.90 | 5.82  |
|    | 친밀도 낮음 | 실험자 존재 | 20 | 17.70 | 8.81  |
|    |        | 실험자 부재 | 20 | 16.00 | 7.97  |
| 5세 | 친밀도 높음 | 실험자 존재 | 20 | 13.30 | 6.91  |
|    |        | 실험자 부재 | 20 | 16.90 | 3.98  |
|    | 친밀도 낮음 | 실험자 존재 | 20 | 10.50 | 7.37  |
|    |        | 실험자 부재 | 20 | 19.10 | 7.00  |

\*\*p<.01